



Occasional Paper Series

06-03

한-미 FTA : 지속성장의 활로

Korea-U.S. FTA: A Path to Sustainable Growth



Alexander Vershbow

July 2006

필자 약력

Alexander Vershbow

- 現주한 미국대사.
- Yale대卒, Columbia대 석사.
-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 駐NATO 미국대사, 駐러시아 미국대사 등 역임.

한-미 FTA : 지속성장의 활로*

Alexander Vershbow

본인은 오늘 아침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하는 특별강연회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본인이 서울로 부임하기 전부터 세계경제연구원의 훌륭한 업적에 대해 이미 들은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은 세계경제연구원의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사공일 이사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시다시피 약 2주 전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롭 포트만(Rob Portman) 대표와 한국 외교통상부의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은 한-미 양국 관계 역사상의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협상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북미 지역과 동북아 지역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정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본인은 오늘 기본적으로 무역자유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사적으로 중요한 현재의 국면에서 한국이 당면한 경제발전상의 일부 주요과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한-미 FTA와의 관계에 초점을 둘 것이다.

또한 오늘은 특히 미국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다. 오늘이 발렌타인 데이(Valentine's Day)이기 때문이다. 이는 본인이 처(妻)에게 꽃을 선물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무역 및 투자 관계이던 로맨틱한 관계이던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은 날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본인은 발렌타인 데이의 기원이 기독교가 도입되기 전 로마제국의 연례 행사였던 루베르쿠스(Lubercus) 축제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적이 있다. 매년 2월 축제기간 중에 처녀들의 이름을 상자 속에 넣어두면, 3월이 시작될 때 청년들은 그 해 자신의 여자친구가 될 처녀의 이름을 상자 속에서 뽑는 것이다. 그렇게 결정된 커플은 다음 해 3월까지 1년 동안 함께 지내게 된다.

* 이 글은 2006년 2월 14일 개최된 특별강연회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이것이 꼭 들어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FTA 조건에 합의할 경우 한-미 양국 간의 새로운 경제관계는 2007년 3월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2007년 3월은 협상을 마무리 짓는 대략적인 마감시한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양국 협상대표들(한 쪽은 총각, 다른 한 쪽은 처녀에 비유할 수 있는)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자주 만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FTA 협상 상대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한-미 양국이 선정된 과정은 상자 속에서 이름을 뽑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이었음이 확실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 한-미 FTA의 매력

그렇다면 미국에게 한국이 왜 매력적인 FTA 협상 상대국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 네 가지를 들어보겠다.

우선 한국은 규모가 큰 선진경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2004년도 교역량이 73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에게 7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미 FTA는 미국이 15년 전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협상을 시작한 이래 미국에게 가장 야심 찬 사업이 되었다. 따라서 상업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이번 협상은 양국 모두에게 아주 큰 기회이다.

이러한 노력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한-미 FTA로부터 얻는 엄청난 이점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한국 정부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실질성장률은 3%, 대미 수출은 15% 증가하고 제조업 취업률도 6.5%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도 경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GDP의 0.2% 수준으로 미국의 경제규모가 11조 달러라는 것을 감안하면 큰 것이다.

경제 문제를 떠나서, 이번 FTA 협상이 훌륭한 생각이라는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며 동북아 지역 내 핵심적인 지리적·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월 3일 부시 대통령의 성명을 인용해 보겠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아시아 및 전 세계에 자유와 평화, 번영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염원과 보편적 가치로 결속되어 있다... 한-미 FTA

는 양 당사국에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익을 제공할 것이며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초석이 될 것이다.”

즉, FTA 타결이 한-미 양국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한-미 FTA가 갖는 지역 역동성의 중요함 때문이다. 한-미 FTA는 태평양 연안국의 결속력을 튼튼히 하고 지역경제가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태평양 건너의 북미대륙과 경제결속을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아마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동북아 지역 내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며, 한-미 FTA의 결과로 인한 한-미 간 무역 및 투자 증진이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들에게 시장개방과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국경제의 내부구조를 감안할 때,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제 지도자들이 추가 시장개방과 경제정책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경제를 강화시키는데 한-미 FTA가 도움이 되기를 미국은 바라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강력한 지도력 하에서 일련의 경제 개방 및 개혁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FTA 협상이 이러한 개혁 조치들이 굳건하게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 FTA의 매력

오늘 본인은 이 마지막 요점, 즉 한-미 FTA가 한국의 경제 개혁 및 성장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 오늘 강연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본인은 한-미 FTA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금년 1월 18일에 있었던 신년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 “우리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본인은 이 말이 아주 현명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에 주목해보라.

이는 단기적인 비전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시각을 부연해서 설명하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에 대해 자주 언급한 말은 “보이지 않는 인프라(infrastructure)”였다. 그 말의 요지는 한국이 물적 인프라에 집중적이고 현명하게 투자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가령 세계 최대의 선진경제인 미국경제에 한국경제를 보다 긴밀히 결속시키는 것과 같이 무형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김현종 통상본부장의 말처럼 한국은 “미국을 교훈 삼아, 일부 부문에서는 미국과 경쟁하면서 선진경제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 장기성장의 과제

한국경제의 장기성장에 대한 가장 큰 과제 몇 가지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노동력의 노령화와 노령인구의 증가라는 점은 분명하다.

인구 노령화 : 본인은 전문교육을 받은 경제학자가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 대다수가 본인보다 더 훌륭하게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인 같은 문외한에게도 인구 노령화 시대가 되면 한국이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국들 중에서 인류역사상 가장 심각한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다. 물론 이는 사회적 비용, 장기 재정포지션, 노동인구 구성비 및 한국의 전체 산업역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심지어 한국 문화와 사회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성장의 기본이론에 의하면 노동력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노동 증가량에 자본 및 생산성 증가량을 합한 것이 총 성장과 같아진다는 단순방정식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진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원론적인 주장은 아니지만, 이용 가능한

국내자본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생산성 증가가 가장 중요한 해법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해당 경제는 가능한 많은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외자본은 이용 가능한 가장 훌륭한 자본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해외자본은 현금과 함께, “경성기술”과 가령 신(新)경영기법과 같은 “연성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모두 도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한-미 FTA가 가는 방향이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보다 나은 사업 기회를 이용하기 위한 대미 한국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로 인해 한국 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영향 역시 매우 플러스(+)적일 것이다. 이전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을 보면 모두 미국의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NAFTA 이전에 44억 달러였던 미국의 투자액이 NAFTA 이후에는 132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 아태지역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 호주 또한 국내 외국인투자가 증가했다.

경제 양극화 :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 중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널리 언급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자신의 재임기간 중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신년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단절 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노 대통령의 분석은 정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경제의 양분현상이 점점 뚜렷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관찰자들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이 기업 부문과 노동 부문 양쪽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선진기술 제조업체들(세계시장 진출능력이 있는)로 이루어진 비교적 작은 그룹들은 엄청난 수출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은 활기차고 안정적인 회사채와 주식시장 내 자금을 조달 받아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에 기술력이 떨어지고 내수시장 지향적인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로 이루어진 두 번째 그룹은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살아 남기 위해 싸우고 있다.

노동 측면에서도 한국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고임금과 안정된 직장의 근로자로 이루어진 비교적 작은 그룹이 있는 반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직장에서 저임금을 겪는 다른 근로자들도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한 일부 근로자들은 흑자기업에서 자신들의 생산성 증가분을 넘어서는 임금인상과 권리, 혜택, 직장 안정성을 요구하는 등 고용 관계를 이용하여 해당 기업들의 더 많은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편, 소규모 기업의 비(非)노조 근로자들과 대기업의 비정규직 및 임시직 근로자들은 자신의 실질소득이 개선되기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하락하기도 하는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본인은 새로운 경제영역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영역이 반드시 제조업일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다 나은 투자 및 고용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면 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본인은 한-미 FTA가 한국이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인투자의 증가는 한국경제 내의 격차해소에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미 FTA는 서비스 특히 금융서비스 부문 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서비스 부문의 규제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규제완화의 결과로 도입된 선진 금융서비스 기법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하는 벤처사업과 창업이 발전하는데 필히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FTA의 규제투명성 조항은 실질(비금융)경제의 규제완화 뿐 아니라 더 많은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라는 불균형은 그 동안 이루어온 고속성장과 구조개혁의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다. 경제 내에는 다른 부분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부분과, 환경을 바꾸기 위한 조정이 다른 것들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직종 및 기업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양극화는 앞서 언급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솔직히 말해 미국도 이와 비슷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고수익 자본을 경제의 새로운 구역으로 강제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본은 유인되어야 하는 것이지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분야에 투자를 강요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또한 정부가 주요 금융매개자로 행동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노무현 행정부는 개혁과 성장이 양극화와 노령화 시대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미 FTA 협정을 추진함으로써 이와 같은 비전에 참여하도록 초대 받은 것에 대해 미국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무척 고무되어 있다.

전략적 맥락: “한-미 관계의 완성”

마지막으로 한-미 FTA 협상의 전략적 맥락에 관해 조금 더 설명해보겠다.

지난 주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은 한-미 FTA에 대해 “한-미 간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완성하는 과감한 움직임”이라고 하였다. 본인은 그 말에 더할 나위 없이 동의한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주목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나 한-미 관계의 역사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한반도의 무력 적화통일을 공개적인 목표로 하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단순한 군사동맹이 점차 확대되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경주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의에서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무대에서 점점 더 커져 가는 한국의 역할을 반영하는, 이른바 ‘동맹·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회의(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라고 하는 고위급 회담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본인은 지난 1월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전략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양자간, 지역간, 다자간, 그리고 세계적 이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는 실제로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심어주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원으로써 나란히 일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1년 더 연장된 것에 감사하고 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한국도 동남아의 쓰나미, 남아시아의 지진, 미국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보내왔다. 한국은 태풍 카트리나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3,0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러한 것이 오늘

날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지원은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인해 고통을 겪는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은 이를 감사히 여기고 있다.

동북아시아 내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 노력은 6자회담에서의 협력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경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외교적 방법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전념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은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되기를 바란다. 북한이 핵프로그램이라는 골치거리를 털어버리고 국제사회에 합류하는 것은 모든 국가와 사람들에게 이익이다. 특히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북한 자신이다.

또한 공동의 번영은 각국 국민들의 건강에 달려 있다. 국제적 관심이 시급히 모아져야 할 이슈 한 가지가 조류독감이 전 인류에게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는 모두 감기 및 독감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한다. 그러나 유행성 독감에 의해 노출된 위협은 1918년의 사례가 수치로 보여주는 것처럼 양적으로 다르다. 유행성 질병이 출현할 경우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 협력 뿐일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이와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 양국 모두는 금년 가을 UN에서 부시 대통령에 의해 출범되는 ‘조류독감 및 광역 전염병에 대한 국제협력(International Partnership on Avian and Pandemic Influenza)’ 프로그램의 창설 회원국이다.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가 굳건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수치는 인적 교류이다. 2005년 9월로 종료된 지난 회계년도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한 비자 건수는 40만 건이었으며, 이번 회계연도는 5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행한 유학비자 건수는 6만 5천 건 이상으로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인 유학생이 세 번째로 많다. 9/11 테러사태로 인해 미국은 보안절차를 추가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는 하나, 가능한 합리적인 절차가 되도록 노력해왔다. 경주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 해당국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로드 맵(road map)을 개발” 하기 위해 한국과 공동 노력하겠노라고 하였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전념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양국 간의 동맹관계는 정부 간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 간의 동맹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은 가능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할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한-미 군사동맹이 양국의 공동목표와 국민이익에 보다 잘 부합되도록 현대화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미국은 몇 개의 미군기지를 인구밀집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통합·재배치함으로써 용산미군 기지와 같은 곳을 한국인들에게 돌려주고, 또 한국군에게 보다 많은 임무와 권리를 이양하려 한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의 어떠한 비상사태도 해결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수 년에 걸쳐 이 지역 주둔 미군의 전투력 향상에 11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서울의 심장부와 같은 곳으로부터 미군을 이전시킴으로써 한-미 양국은 향후 수십 년 간 동맹관계를 굳건히 유지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미군을 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미국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쟁억지 효과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미관계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발렌타인 데이인 오늘 우리가 한-미 FTA의 타결이 양국 동맹관계를 완성시키고 한-미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논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행운이다.

한-미 FTA의 장점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 의 · 응 답

[질 문] 시의 적절한 강연을 해주신 대사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5대 경제기관이 국내 신문에 FTA가 주는 장점을 주로 설명하면서 이번 한-미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미국에도 한-미 FTA를 지지하는 경제기관이나 이익집단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지지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번 FTA를 반대하는 이익집단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 양국 이익집단의 반대를 잠재울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이익을 위해, 귀하는 이번 협상에서 몇 가지 예외를 허용하는 일반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답 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실제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 한-미 재계회의 등 많은 미국 기업과 무역관련 기관들이 FTA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본인이 아직까지 그 명단을 전부 기억하지 못하지만 곧 기억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심스럽게 지켜보아야 할 산업부문이 일부 있지만, 본인은 아직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기관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본인은 미국 내 모든 사람들이 FTA가 미국경제와 한국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킬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FTA 협상을 아주 전통적인 윈-윈(win-win) 상황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문제로서, 미국은 항상 상품과 서비스의 전체적인 스펙트럼(spectrum)을 다루는 포괄적 FTA에 관한 협상을 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번 FTA 협상의 목표이다. 일부 부문은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협상이 시작 되면 분명히 더욱 민감해질 것이고, 한 부문과 다음 부문 사이에 다소 차별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물론 본인이 실제 협상내용에 대해서 앞서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시장개방이 최상의 해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예외를 두지 않는 균형적인 접근방식을 찾고,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상호 수용 가능한 방식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다.

[질 문] 한국과 한국경제에 대한 FTA의 중요성을 평가해준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인으로서 말하자면, 한국은 이번 FTA를 통해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라는 점을 이 자리의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기본적으로 귀하는 투자 측면의 거시적 차원에서 한-미 FTA가 한국에게 줄 장점에 대해 역설하였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보다 폭 넓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고 농민 등으로부터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FTA가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장기적 영향에 관해 강조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이번 FTA가 한국의 문화산업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의 신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본인은 한-미 간 FTA 협상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향후 몇 달뿐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나면 앞으로 20년 혹은 어쩌면 영원히 이와 같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이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되어 두 가지 질문을 하겠다. 첫째, 이번 FTA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가? 둘째, 이번 FTA 협상에서 한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개성 산업공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견해차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 견해가 있는가?

[답 변] 한-미 FTA가 농촌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한 귀하의 전반적인 시각과 관련하여, 이번 FTA의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농업 부문의 구성원들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농업 부문은 이번 협상에서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는 농업 부문을 개혁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본인은 수익성이 낮고 경제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생산품목을 향후 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다른 품목으로 조정하는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를 보고 기뻐다. 이러한 것이 이번 FTA의

잠재적 영향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즉 이번 FTA는 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업 부문 뿐 아니라 다른 경제 부문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개혁을 이끌어 가는 틀로 이용되어야 한다. 물론 미국측도 이와 같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 의회의 승인거부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무역협정은 미국 내에서 항상 논쟁의 대상이며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도 아주 근소한 표차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협상을 이끌어 나가면서 상대방의 의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다.

개성산업공단과 관련하여, 우선 미국은 개성산업공단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을 상업적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해왔으며, 개성공단에서 사용되는 특정기술의 이전에 필요한 사용권을 제공하기 위해 애써 왔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가는 복잡한 문제이다. 출발점은 한-미 FTA가 미국과 한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관한 협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앞서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질 문] 한-미 FTA가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귀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귀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FTA는 아주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귀하는 한-미 FTA 협상의 종료시한이 내년 3월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귀하는 이번 협상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내년 3월로 정해진 협상시한을 넘길 수 있는 산업의 장래에 대한 협상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만약 정해진 시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민감한 이슈를 남겨둔 채 중간 수준의 FTA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가?

[답 변] 한-미 FTA는 미국이 15년 동안 체결한 FTA 중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가장 신속하게 타결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협상의 타결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다. 우리는 백지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국측 협상 상대방과 수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오으로써 이번 FTA 협상에서 무엇을 주요 이슈로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1차 협상을 마친 상태이다. 따라서 5월에 공식협상이 시작되면 양국은 신속하게 협상에 착수하여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마감시한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경우 사람들을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집중하게끔 만든다고 생각한다. 양국의

정치적 의지가 분명하므로 협상시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새로 개정될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에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협상의 타결은 정말 필요하다. “실패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하던 과거 어느 우주비행사들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

높은 수준과 중간 수준에 대해서 말하자면, 현 단계에서 우리는 높은 수준에 대한 포부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는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중간 수준의 FTA에 안주하려 한다면 양국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은 가능한 큰 성과를 얻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질 문] 이번 협상에서 다른 안보 이슈 또는 정책과 FTA 정책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가? 다시 말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가?

[답 변] 강연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FTA를 보다 폭 넓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향후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또는 핵확산 방지 수단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FTA는 우리가 더욱 손쉽게 서로 다른 이슈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아내도록 만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FTA 협상이 이와 다른 분야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FTA는 보다 폭 넓은 전략적 맥락에서 양국의 동반자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도 양국 정치·안보 관계가 전반적으로 튼튼하다는 사실로 인해 미국 의회가 우호적인 입장이 될 것이고, 나아가 미국 의회로 하여금 FTA를 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보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FTA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으로 판단하겠지만 말이다. 양국이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유, 즉 높은 수준의 FTA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질 문] 우선 앞서의 질문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중간 수준의 FTA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해 포괄적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은 아주 높은 수준의 패키지(package)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한-미 양국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은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매우 뛰어나다. 본인의 질문은 지역적 특히 일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문제에 대

해 4년 전에 집필한 저서에서 “한-미 FTA의 타결은 일본으로 하여금 가까운 장래, 어쩌면 한-미 FTA 체결 후 곧바로 미-일 FTA 체결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점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 변] 본인은 한-미 FTA의 성공적 타결이 아시아 지역 내 다른 국가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이며,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서라도 그들이 자국시장 개방하는데 자극이 될 것이라는 귀하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러한 것이 실제 FTA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지 어떨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이론을 한-미 FTA라는 실천사항으로 전환시키는 당면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자국경제에 유익할 수 있다는 경우에 한하여 아시아 여타 국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Korea-U.S. FTA: A Path to Sustainable Growth*

Alexander Vershbow

It's a real pleasure for me to be able to meet with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this morning. I heard great things about this organization even before I left Washington to move to Seoul. So my thanks go to Dr. Sakong Il for offering me this opportunity to speak with you today.

As you all know, less than two weeks ago U.S. Trade Representative Rob Portman and Korean Trade Minister Kim Hyun-Chong announced the launch of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at event marked a major milestone in the history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It also represented a milestone in the development of deeper economic links across the Pacific Ocean between North America and Northeast Asia.

Today I would like to focus primari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More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Korea FTA and responses to some of the key economic development challenges facing Korea at this important juncture in its economic history.

Today is also a very important day, certainly for Americans. It is Valentine's Day. That means I need to remember to get flowers for my wife Lisa. It also means it's a good day to talk about deepening relationships, whether those are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hips, or romantic relationships.

* Transcription of a speech given at th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Tuesday, February 14, 2006.

I was surprised to learn that Valentine's Day actually dates back to pre-Christian Rome and the annual feast of Luperus. Every February during that feast, the names of young maidens were put in a box. Boys would draw out names to decide who would be their girlfriend for the next year, which began in March. The couple would then stay together for a year, until the following March.

It's not an exact parallel, obviously. If we agree on the terms of a Free Trade Agreement, the new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last much longer than March 2007. But March 2007 is important as it is our rough deadline for completing the negotiations. And our Chief Negotiators — one a boy and the other a girl, by the way — will be dating frequently over the coming twelve months.

Trust me, however, that the selection process for choosing partner nations for the U.S.-Korea FTA negotiation was more scientific than drawing names out of a box.

Attractions for the United States

So, why is Korea an attractive FTA partner for the United States? Let me cite four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First of all, Korea has a large and advanced economy. In fact, Korea is the United States' seventh-largest trading partner, with two-way goods trade in 2004 valued at \$73 billion. This makes the U.S.-Korea FTA our most ambitious FTA undertaking since we began negotiations with Canada and Mexico 15 years ago. So just from a commercial perspective, this is a very big opportunity for both sides.

The overwhelming benefits of a U.S.-Korea FTA justify the effort. The latest Korean government research predicts that a U.S.-Korea FTA would

increase Korea's real GDP by as much as 2%, boost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by 15%, and raise manufacturing employment by 6.5%. For the United States, the economic impact is also expected to be significant, around 0.2% of GDP, which is a lot for our \$11 trillion economy.

Beyond economics, the second reason why these FTA talks are such a good idea is because Korea is an important ally of the United States, and a key geo-strategic partner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Let me read to you from a statement by President Bush issued on February 3. The President said: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a strong alliance and are bound together by common values and a deep desire to expand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throughout Asia and the worl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ll provide important economic, political, and strategic benefits to both countries and build on America's engagement in Asia."

Completing a Free Trade Agreement can only make the bilateral U.S.-Korea relationship even stronger.

Third, there is an important regional dynamic to a U.S.-Korea FTA. This FTA will help cement trans-Pacific economic ties, and add balance to regional economic relations. More than some other Asian nations, perhaps, Korea seems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Asian nations reaching across the Pacific to forge strong economic ties with North America.

From the American perspective, we hope that the U.S.-Korea FTA will further strengthen Korea's leadership role in Northeast Asia. We hope that the increased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sulting from this FTA will help inspire Japan, China and others to accelerate their own market opening and economic reform.

Fourth, and finally, looking at Korea's internal economic structure, we hope that a U.S.-Korea FTA will help Korea's reform-minded economic leaders to continue to strengthen the Korean economy, through further market opening and economic policy reform.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under strong leadership, Korea has taken a series of important steps to open and reform its economy, which have continued to this day. We hope that the FTA talks will provid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lock in and build on these reforms.

Attractions for Korea

I would like to spend some more time today discussing this final point — the benefits of the U.S.-Korea FTA in helping to promote economic reform and economic growth in the Republic of Korea. As indicated by the title of my address today, I believe that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will help significantly in promot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here in South Korea.

During his New Year's address on January 18, President Roh first spoke about the U.S.-Korea FTA, saying: "We should conclude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for the future of our economy." This strikes me as a profoundly wise statement. Notice the reason the President cites. It's not a short-term vision. President Roh was talking about making the Korean economy stronger in a lasting way.

Amplifying President Roh's view, Trade Minister Kim Hyun-Chong has frequently referred to Korea's FTA with the United States as an "invisible infrastructure." His point is that Korea invests heavily, and intelligently, in physical infrastructure. Similarly, Korea can and should invest in intangible infrastructure, such as by linking the Korean economy more closely to the largest and most advanced economy on the planet, the United States. As Minister Kim has said, Korea "will learn from the United States, compete

with it in some areas, and have the opportunity to grow into a developed economy.”

Challenges to Long-Term Sustainable Growth

Let’s explore for a moment what are the biggest long-term growth challenges for the Korean economy. One is clearly the problem of Korea’s rapidly aging labor force, and its growing retirement-age population.

Aging Population: Now, I am not a professional economist by training. And I expect that most of you in this room could explain this problem more fully than I can. But it is clear even to a layman that when it comes to the aging population, Korea faces a major dilemma.

According to some calculations, Korea is experiencing the most rapid fertility rate decline in any major country in human history. This will, of course, have a huge impact on social expenditure, the nation’s long-term fiscal position, and the composition of the labor force and Korea’s general industrial capability. It could even have some impact on Korean culture and society.

Basic economic growth theory says that sustained growth will be harder to achieve when the labor force is not growing — following the simple equation of labor growth, plus capital, plus productivity growth, equals total growth. At the same time, social costs could become prohibitively expensive without growth.

What to do about this situation? It’s not an original argument, but given the finite availability of domestic capital, the key solution must be productivity growth. The goal is to produce more, especially in services, using fewer people.

At the same time, the economy should endeavor to attract as much foreign capital as possible. Foreign capital is among the best capital available because, along with cash, it tends to bring and introduce new technologies, both “hard technologies” and “soft technologies” such as new business management practices.

This is where the U.S.-Korea FTA comes in. We expect that with a U.S.-Korea FTA, we will see an acceleration of Korea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to take advantage of improved business opportunities. But an FTA will also have a profoundly positive impact on foreign investment in Korea. All previous American FTA partners have seen a sharp increase in U.S. direct investment. For example, U.S. investment in Mexico jumped from \$4.4 billion pre-NAFTA to \$13.2 billion after NAFTA. Our only other Asia-Pacific FTA partners, Singapore and Australia, also experienced increased inward foreign investment.

Polarized Economy: A second key challenge to the Korean economy in the medium and long term is the problem that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polarization of the economy.

President Roh has made this a major theme of his presidency. As he explained in his New Year’s speech: “The divide between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employees is growing wider.” Again, I think President Roh’s analysis is right on the mark. It’s quite apparent to most observers that a bifurcation — or splitting in two — of the Korean economy is becoming increasingly clear. Significantly, as President Roh said, this is happening on both the business front and the labor front.

In business terms, a relatively small group of technologically advanced manufacturing firms — those with the capability of reaching world markets — has enjoyed an immense export boom. That group is investing more overseas, financed by vibrant but narrow corporate bond and stock

markets. Meanwhile, a second group of less technologically advanced, more domestically oriented smaller firms is struggling to stay alive, while find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attract bank financing.

In labor terms, Korea also has an unusual situation — where a relatively small group of workers enjoy both high wages and high job security, while others experience both lower wages and lower job security. Some unionized workers take advantage of their employment at profitable firms to demand wages, rights, benefits and job security that arguably exceed the increases in their productivity, making it hard for those firms to hire more regular employees. Meanwhile, non-union workers at smaller firms, and irregular and temporary workers at large firms, are seeing only slow improvement, or even declines, in their real incomes.

What's to be done in such a situation? It appears to me that the key is to create new growth opportunities in new economic areas — not necessarily manufacturing - but in areas where better investment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can be generated to try to bridge the gap.

Here, again, I believe there is an important role for the U.S.-Korea FTA to play in helping build Korea's "invisible infrastructure." Increased foreign investmen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fill gaps in the Korean economy. But the FTA will also help by promoting service sector deregulation, particularly in financial services, but also in other key service sectors. More sophisticated financial services methodologies introduced as the result of deregulation will inevitably help spur the development of venture capital and start-ups, creating new growth opportunities. In addition, the regulatory transparency provisions of the FTA should help accelerate deregulation of the real (non-financial) economy as well, creating even more avenues for investment and job creation.

To some extent, the "polarization" disparities now evident in the Korean economy are the inevitable result of the rapid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that have already taken place. Some parts of an economy always grow faster than others, and some workers and businesses adjust more quickly than others to changing circumstances. But polarization remains a problem to be addressed, and it's a similar problem, frankly, to what we face in the United States. Rather than trying to force high-performing capital into new segments of the economy, it needs to be lured into those segments. Investment in the gaps of the economy must be attracted — it cannot be dictated. Certainly, no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strict investment in some areas in order to try to force investment into others. It is also not wise for the government to act as a major financial intermediary.

Fortunately, it is clear that the Roh Administration understands that reform and growth are the ways to deal with the polarization and aging society dilemmas. The United States is highly pleased and excited that we have been invited to participate in this vision, through the pursuit of 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The Strategic Context: "Completing U.S.-Korea Relations"

Finally, let me discuss just a bit more the strategic context of the U.S.-Korea FTA talks.

Last week, Vice Foreign Minister Yu Myung-hwan called the FTA talks "a bold move to complete Korea's strategic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 couldn't agree with him more.

Sometimes when things happen gradually, they don't get noticed. But what has gradually happened in the history of U.S.-Korea relations is that a plain military alliance that was established to protect South Korea from North Korea's declared aim of reunifying the peninsula under communist rule by force has step-by-step expanded and graduated, and emerged into an important global partnership.

During their Gyeongju summit meeting in November,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Roh agreed to launch a high-level strategic dialogue called the 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reflecting Korea's increasing international standing and its growing role on the world stage. In January I attended the first of these consultations in Washington and I am happy to report that we had an excellent discussion on bilateral, regional, multilateral and global issues.

Our alliance really has taken on a global dimens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working side-by-side to rebuild Iraq and Afghanistan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effort to bring freedom, peace and democracy to those nations. We appreciate that Korea recently extended the mission of its troops in Iraq for an additional year.

Alongside countries from across the globe,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sent humanitarian assistance to regions hit hard by natural disasters, such as the tsunami in Southeast Asia, the earthquake in South Asia, and the hurricanes in the United States. It is a measure of Korea's stature in the world today that the ROK contributed \$30 million to aid the victims of Hurricane Katrina. That assistance will help Americans who suffered from one of the worst natural disasters in our history, and we are grateful.

Here in Northeast Asia, our bilateral efforts to increa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nsure stability are evident in our work together in the Six Party Talks. As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Roh said at Gyeongju, we are committed to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diplomatic methods, but we will not tolerate a nuclear-armed North Korea. I hope that talks will resume soon. It is in the interests of all countries and peoples, but most especially it is in the interests of the North Koreans themselves that the DPRK shed the albatross of its nuclear programs and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llective prosperity also depends on the health of each nation's people.

One issue that urgently requires international attention is the threat that avian influenza could lead to a human pandemic. When the weather turns cold, we are all to some extent thinking about catching colds and flu, but the dangers posed by an influenza pandemic are quantitatively different, as the 1918 case graphically shows. Preventing a pandemic and minimizing the damage if one emerges will uniquely require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hington and Seoul are working together on this important issue. Both our countries are founding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Partnership on Avian and Pandemic Influenza launched by President Bush at the United Nations this fall.

Another measure of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is the numbers of people-to-people exchanges. The U.S. Embassy processed over 400,000 visas in our fiscal year that ended in September 2005, and we hope to process as many as 500,000 in the 2006 fiscal year. The U.S. Embassy issues more than 65,000 student visas, making Korea the third largest source of foreign students in the U.S. Since the terror attacks on September 11, we have been required to institute additional security procedures, but wherever we can we have worked to streamline the process. In the Gyeongju summit, President Bush sai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work with the ROK to “develop a Visa Waiver Program roadmap to assist Korea in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membership in the program.” I personally am committed to this issue, because as you know our alliance is not just between governments but between our two peoples, and I want to ensure that as many Koreans as possible have the opportunity to visit the United States.

As I mentioned earlier, we are working closely with the Korean government to modernize our defense alliance to better meet our shared goals and better serve our peoples. We plan to consolidate and relocate several bases away from population centers, return some bases such as Yongsan Garrison to the Korean people, and transfer more missions and authority to Korea’s armed forces. Over the next few years, we plan to spend \$11 billion to upgrade U.S. forces in the region to improve our ability deal with any contingency on the Peninsula or beyond. By moving our

troops out of places like the heart of Seoul, we will lay the groundwork for keeping our alliance strong for decades to come; and by improving the quality of our forces; we will ensure the effectiveness of our deterrent for decades to come.

In short, U.S.-Korea relations are advancing in a positive way on several fronts. Today, on Valentine's Day, we are lucky enough to be able to meet and discuss how conclusion of 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will help complete our alliance, and raise U.S-Korea relations to next level.

Thanks again for the opportunity to address the benefits of a U.S.-Korea FTA, and now I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and comments.

Questions & Answers

[**Q**] As you may know, five Korean major economic organizations advertise largely in local newspapers explaining the benefits of FTA, which with the U.S. supports successful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this FTA agreement. My question is, are there any U.S. economic organizations or interest groups in favor of FTA with Korea, and what are the reasons for their support? And are there any interest groups that are not in favor of the FTA, and what are the reasons for their opposition? Lastly, don't you think there should be a general rule that should allow some exceptions to this agreement for mutual benefits that will keep away objections of some interest groups of both countries?

[**A**] On the first question, a number of U.S. business and trade organizations have indeed come out quite strongly in favor of an FTA, including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here in Korea, the U.S. Chamber of Commerce, and the U.S.-Korea Business Council; I don't have the whole list memorized yet but I will soon. I haven't heard of any organizations that have come out against an FTA, although, some sectors of

our economy may be more cautious, waiting to see what the results will be for their industries. But I think everyone in America is persuaded that this will be a major boost to our economy, and to Korea's economy. I think it's a very classic win-win situation.

To your second question, as a matter of principle, we have always negotiated comprehensive FTAs that cover the full spectrum of goods and services, and that's what we aim to do in this FTA. Obviously some sectors will be more sensitive when it comes to negotiating concrete provisions, and there may be somewhat different treatment between one area and the next. But of course I don't want to anticipate the actual negotiations and we think market opening is the best solution. So we hope we will find a balanced approach that doesn't make exceptions, but that comes up with mutually acceptable formulae for the sensitive issues.

[Q] Thank you for sharing your assessment of the significance of the FTA to Korea and our economy. As a Korean, I think I speak for everyone here when I say that I think we will enjoy a tremendous benefit from this FTA as far as Koreans are concerned. You basically emphasized the benefits that the FTA will bring to Korea on the macro level in terms of investment, but in order to secure broader based popular support and overcome the resistance from the farmers etc. in this country probably it would be better to supplement that with emphases on the long-term impact of this FTA on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and my belief is that in the long-term, this FTA could be the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lobal economy as well as Korean cultural industry. With that as background, I believe this window of opportunity for FTA between our two countries would remain open for only several months from now, and once it's closed, it will not return to us over the next two decades and maybe never. So this is a very critical juncture. I have two questions. First, are there any chances of this FTA, once it is negotiated, being defeated in the U.S. Congress? And second, I think one unexpected stumbling block could be a disagreement on how to tre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language of this FTA. Is there any view that you can share with us on that

issue as well?

[**A**] On your general point on the impact on the rural economy, it's clear that there are members of the farm sector that are worried about the impact of the FTA, and this will be a sensitive part of our negotiations. But I think this is also an opportunity for reforming the agricultural sector, and we're pleased to see the government has already announced measures that will be undertaken over the next ten years to conduct such reforms to redirect some of the less-profitable, less-economically competitive areas of production into other areas where they may be more sustainable in the long-term. So I think that's the positive way to look at the potential impact of the FTA: to use it as the framework for conducting necessary reforms that will ultimately benefit not only the rural sector but the wider economy by promoting a more rational use of resources. And of course these kinds of decisions will have to be made on the American side too. So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rejection by the U.S. Congress, of course it is possible. Trade Agreements are always controversial in American debate, and the ones that have been approved have been approved by very slim majorities. So it will be important, as we conduct these negotiations, to be sensitive to the issues of the other party and to be sure that we come up with a result that can pass scrutiny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he U.S. Congress. That is certainly our objective.

Regard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 would say, first of all, that the U.S. has supported South Korea's efforts to engage North Korea commercially through projects like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we have even made the effort to provide necessary licenses for the transfer of certain technologies for use in Kaesong. That being said, how Kaesong is treated under the FTA is going to be a complex issue. The starting point is that an FTA applies to goods originating in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But there will be negotiation, and I think it best not to anticipate what will take place in the negotiation through the media.

[**Q**] I fully share your views of the beneficial impact of the U.S.-Korea

FTA. As you said it should be very comprehensive. You said that the Korea-U.S. FTA should end by March next year. Considering that they should be comprehensive, you also mentioned they should touch on perspective of the industry, where negotiation may take longer than the deadline you set of March next year. If we fail to reach a conclusion by that deadline, can we work towards a medium quality FTA leaving the sensitive issues aside?

[**A**] It's true that this is not only the biggest FTA that we've negotiated in 15 years, but it also has to be the fastest FTA that we've ever negotiated. However, we're optimistic that it can be done. We don't start from a blank sheet of paper, we have been discussing these issues with our Korean partners for several years, and we have already had preliminary discussions on what are to be the key issues to be discussed in the FTA. So when formal negotiations begin in May, I think we'll be ready to get off to a quick start with text on the table. I think that deadlines tend to focus peoples' minds, and if you don't have much time, you're forced to focus on what is really important. With the political will that is clearly present on both sides, we should be able to meet the deadline. I don't think we can count on Trade Promotion Authority being renewed beyond July 1, 2007, so we really need to get this done, and adopt the model of some of our astronauts of the past, when I say that "failure is not an option."

And as far as high quality versus medium quality, I think we should maintain a high level of ambition at this stage. There will have to be flexibility on both sides as we go through this negotiation, but if we settle for a medium quality FTA, that may be harder to sell to our parliaments. So I think it better to go for the big prize that I think is attainable.

[**Q**] How closely are FTA policies related to other security issues or policies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In other words, are there other factors that might affect the negotiations?

[**A**] As I said in my remarks, we view the FTA as an important way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our wider strategic partnership, and I think that will in and of itself make it easier for us to find common ground on different issues whether it is how to deal with future security challenges in Northeast Asia, or how to find ways to cooperate against proliferation. But I don't think the FTA negotiations will be directly affected by our work in these other areas. It will affect the larger strategic context for our partnership. Perhaps Congress will be favorably influenced by the fact that our overall political and security relationship is strong, and hopefully that will make them look at the FTA in a more positive frame of mind, but of course they will ultimately be judging it on its economic impact. That's why we are aiming to achieve the best possible result for both countries — the high quality FTA that we are striving for.

[Q] I first have a couple comments on previous questions. First on the possibility of having medium quality FTA, I think we have to be very careful there. It raises the question of having a comprehensive regional trading agreement,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have a very high quality and comprehensive package of course, and in terms of timing, I think our countries have enough time, and as you know Koreans are very good at doing things quickly. But my question is on the regional impact, especially on Japan. When I wrote a book on this issue four years ago, I remember writing a sentence saying, "a successful U.S.-Korea FTA would trigger Japan's reaction to consider possible Japan-U.S. FTA in the near future, perhaps immediately following the U.S.-Korea FTA". What is your assessment of this.

[A] I would agree that our success in reaching a U.S.-Korea FTA will have a very strong impact on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and will encourage them to open their markets, if only because they will be worried about losing in the competition. Whether this leads to interest in an actual FTA, I cannot say, but it is quite possible. But for now we are focused on the immediate task of translating the theory into the practice of a U.S.-Korea FTA, and if we succeed, I think it will have an inspirational effect on the rest of the region, which can only be to the good of everyone's economies.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 법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 개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행사 참가비 할인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